

예수님을 닮아 사는 우리들의

작은 마음

제2379호 2024. 12. 15. 대림 제3주일 (자선 주일)

제1독서 : 스바니아 예언서 3,14-18

제2독서 : 필리피인들에게 보낸 서간 4,4-7

복음 : 루카 복음서 3,10-18

발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주소 : 03083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56 가톨릭 청소년회관 내 '작은마음'

이메일 : chota_littlemm@naver.com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루카 3,16



오늘의 미사

그림_ 가브리엘라 수녀님

★ 화 답 송

◎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알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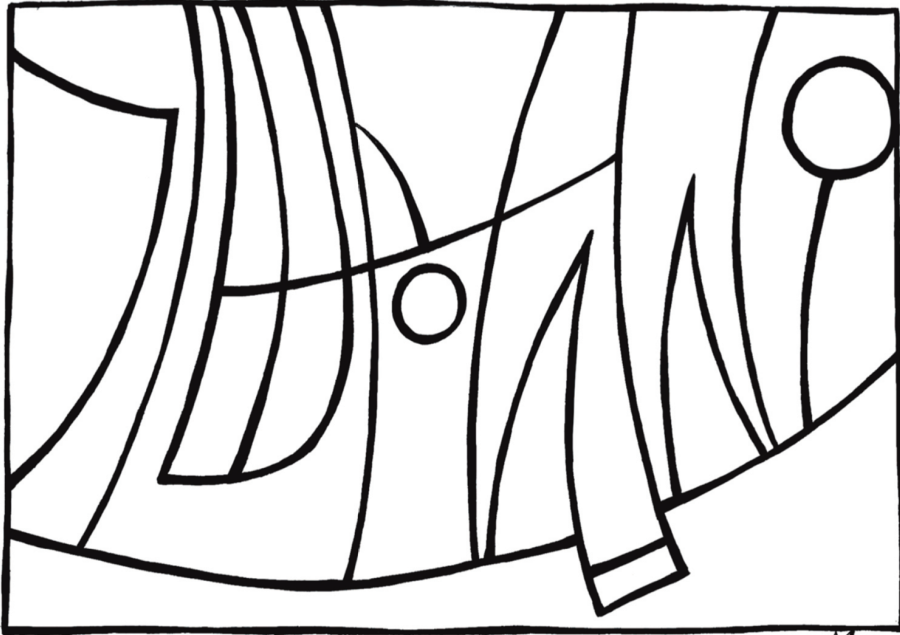
★ 영성체송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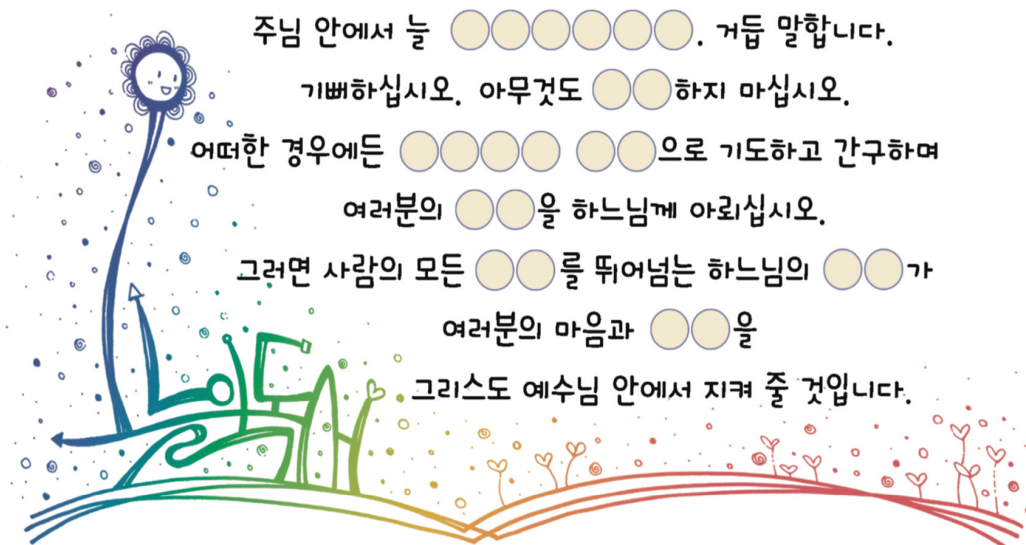
•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말씀그림



● 말씀그림에 숨어있는 한글을 찾아보고 예쁘게 색칠하세요.

2024년 1월



◇ 제2독서 <필리 4,4-7>

● 오늘의 독서를 읽고 빈 칸을 채워 보세요.



신부님 말씀



18지구 목3동 성당
함승수 세례자요한 신부님

자선, 어렵지 않아요!

✙ 찬미 예수님!

작은마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림3주일이자, 자선주일이에요. '자선'은 무슨 뜻일까요? 자선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주변 친구와 이웃에게 전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 주님의 사랑을 느꼈나요?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볼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과 재밌는 하루를 보냈을 때, 내 친구가 내가 힘들어 하는 일을 도와줄 때, 부모님이 나를 꼭 안아주실 때, 이런 순간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향해 사랑의 화살을 마구 마구 보내주시는 순간이지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랑을 주변에 나누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화를 내거나 미워하거나 괴롭히지 않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친구가 힘들어 하고 있을 때 마음을 다해 도와주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꼭 안아 드리는 것이 바로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제 다다음 주면 아기 예수님이 오신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주변 친구와 이웃에게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곧 있으면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을 위한 선물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선물 준비하러 나가 볼까요? 고고♥



Q. 오늘 복음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며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알린 예언자는 누구 일까요?

- ① 요셉 ② 루카 ③ 베드로 ④ 세례자 요한



엄마, 아빠랑 하느님 만나러 가요.

금호동 성당 유치부 송아인 마리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주신 분이예요. 마리아 어린이의 작품처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넘치도록 사랑을 주신답니다. 작은마음 친구들, 자선 주일을 맞아 이렇게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어떨까요?

